

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

CATI & ARS

제31차 CATI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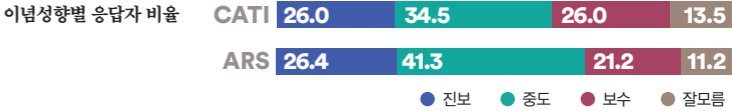
제46차 ARS조사

여론조사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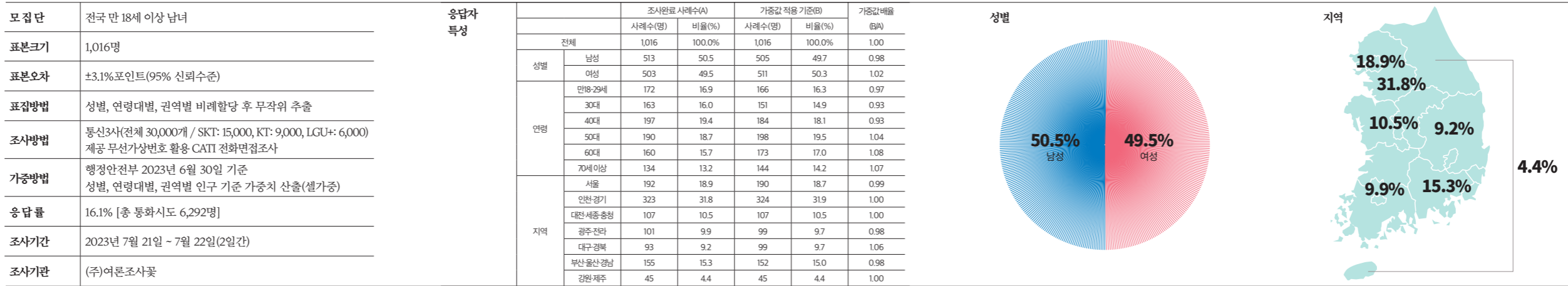
정례여론조사

보고서

CATI & ARS



CATI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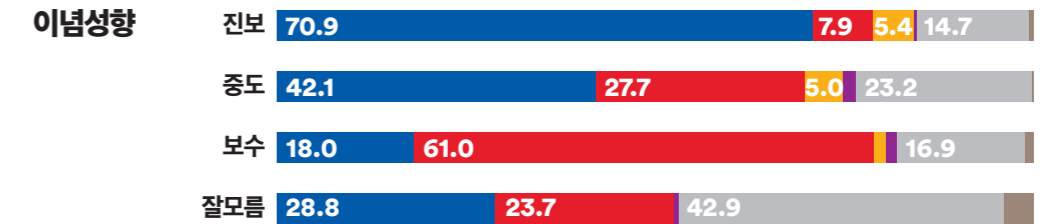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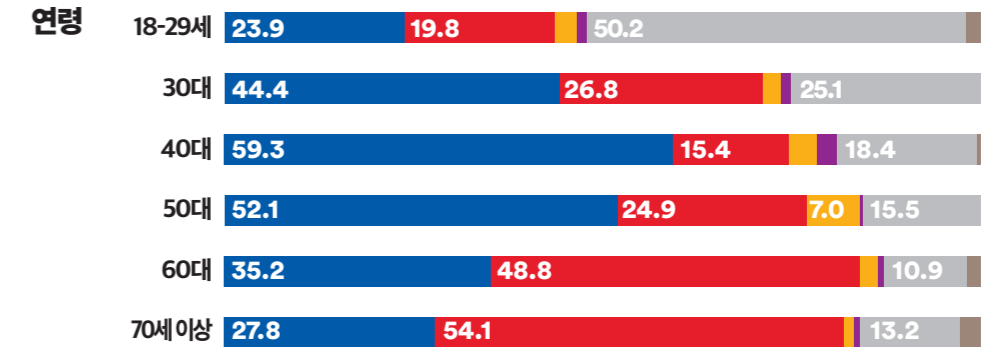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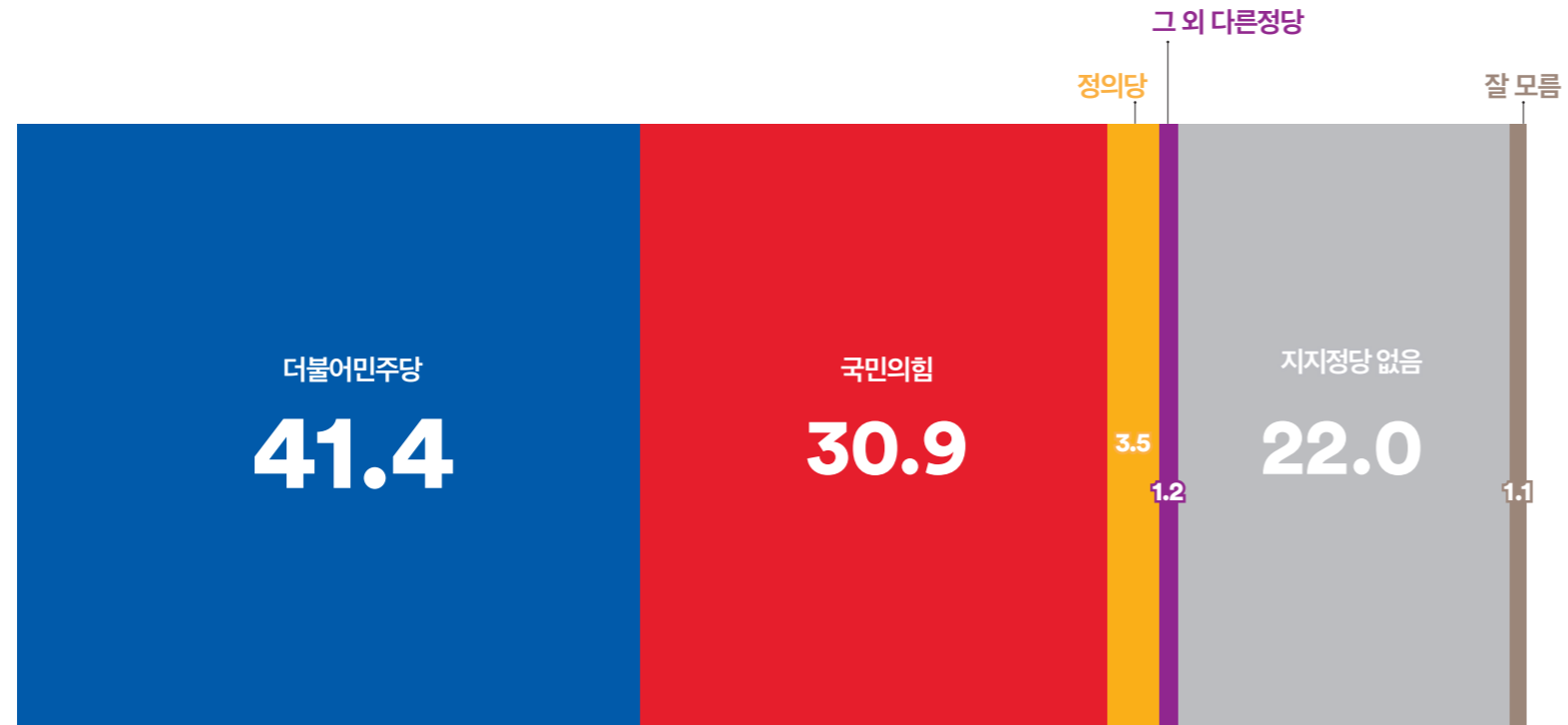


ARS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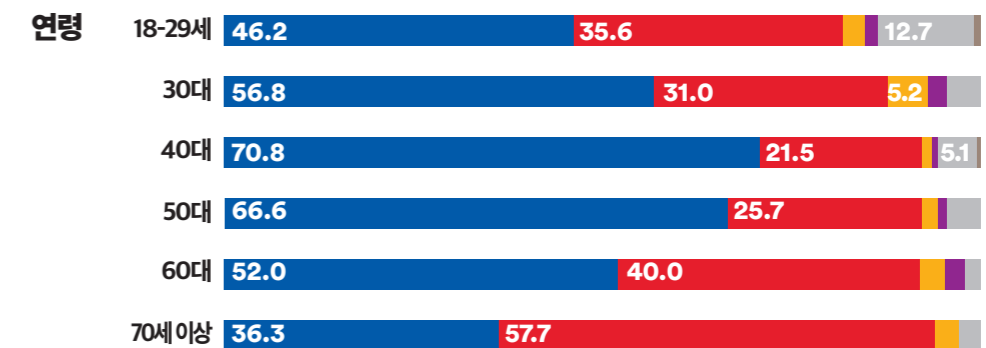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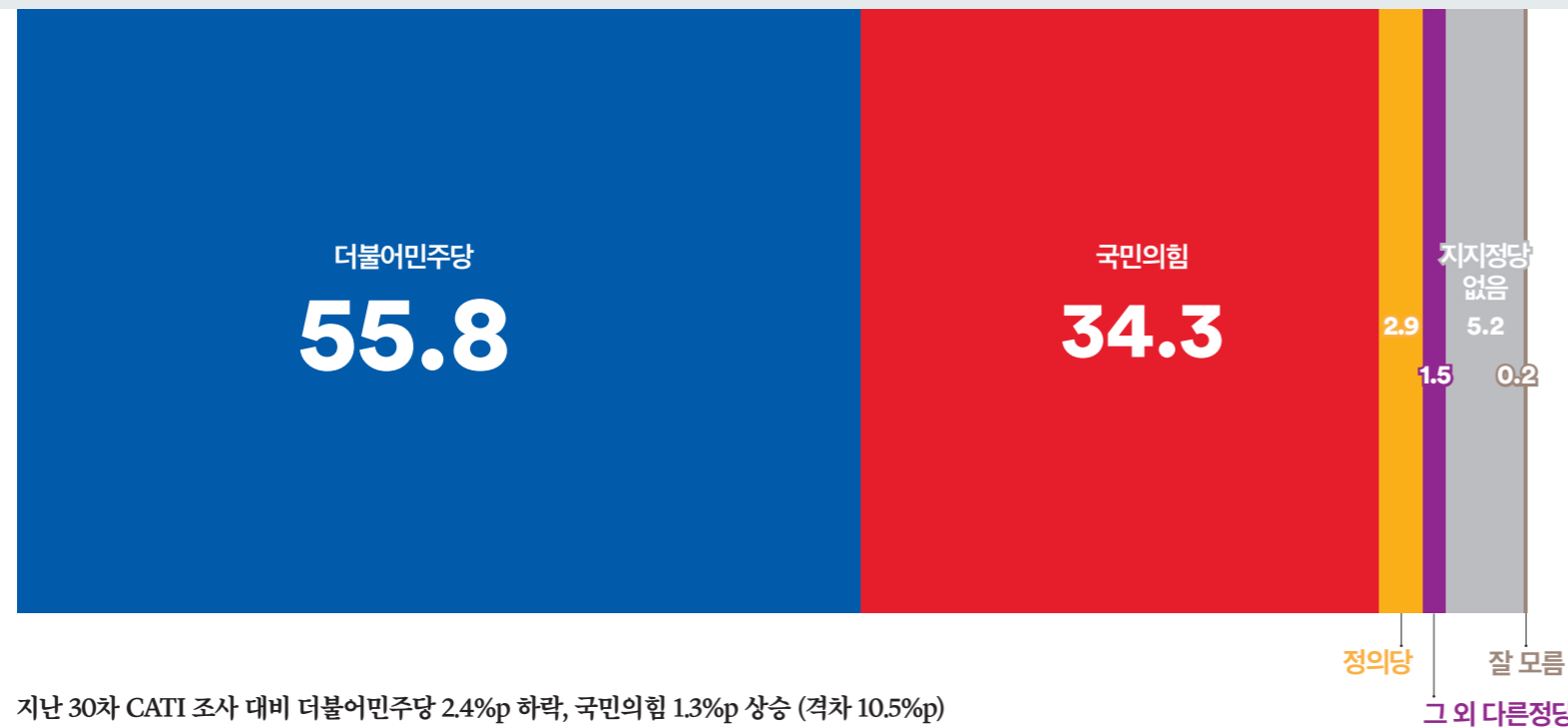
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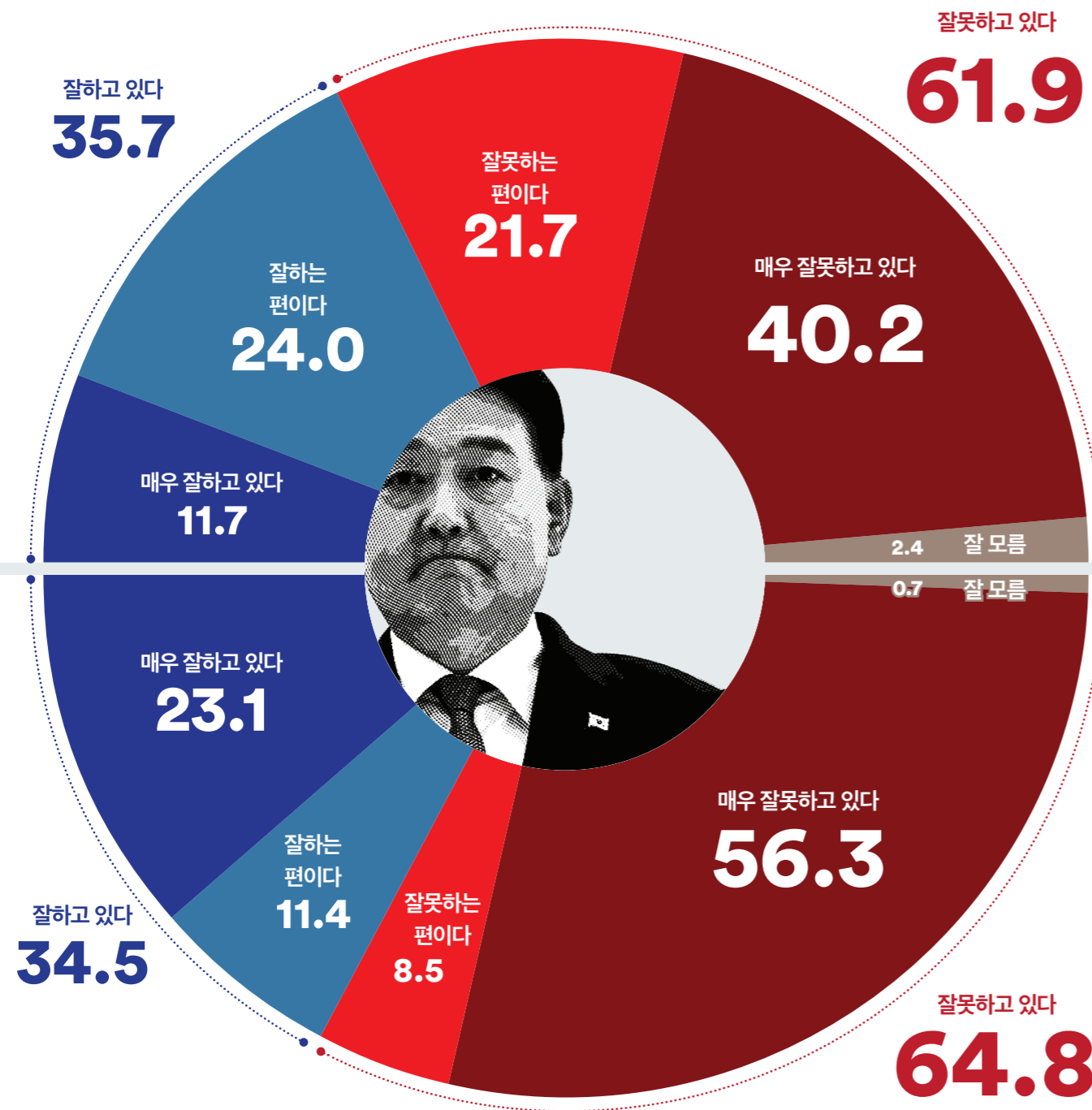
ARS



지난 30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.4%p 하락, 국민의힘 1.3%p 상승 (격차 10.5%p)
 지난 45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4.7%p 상승, 국민의힘 0.3%p 상승 (격차 21.5%p)
 전주 대비 더불어민주당이 CATI 조사에서 소폭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가 좁혀졌으나,
 여전히 두 조사에서 모두 두 자릿수 격차와 함께 우세를 유지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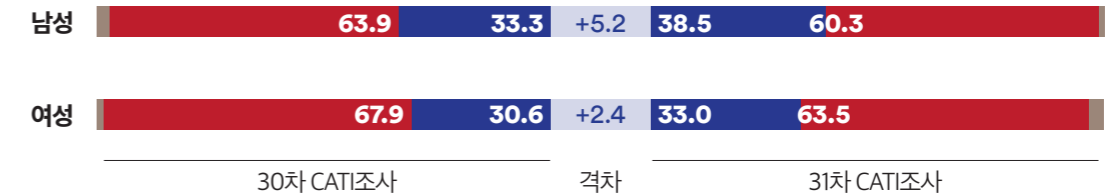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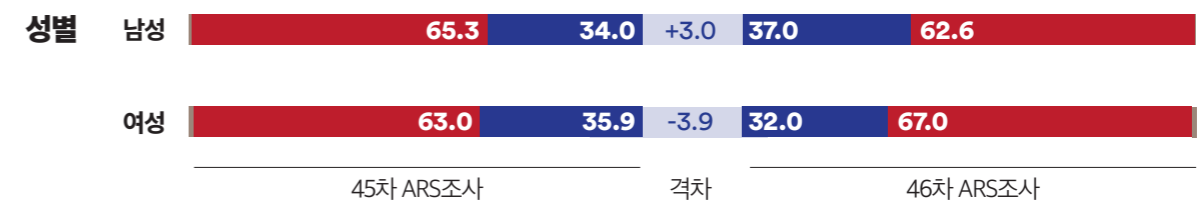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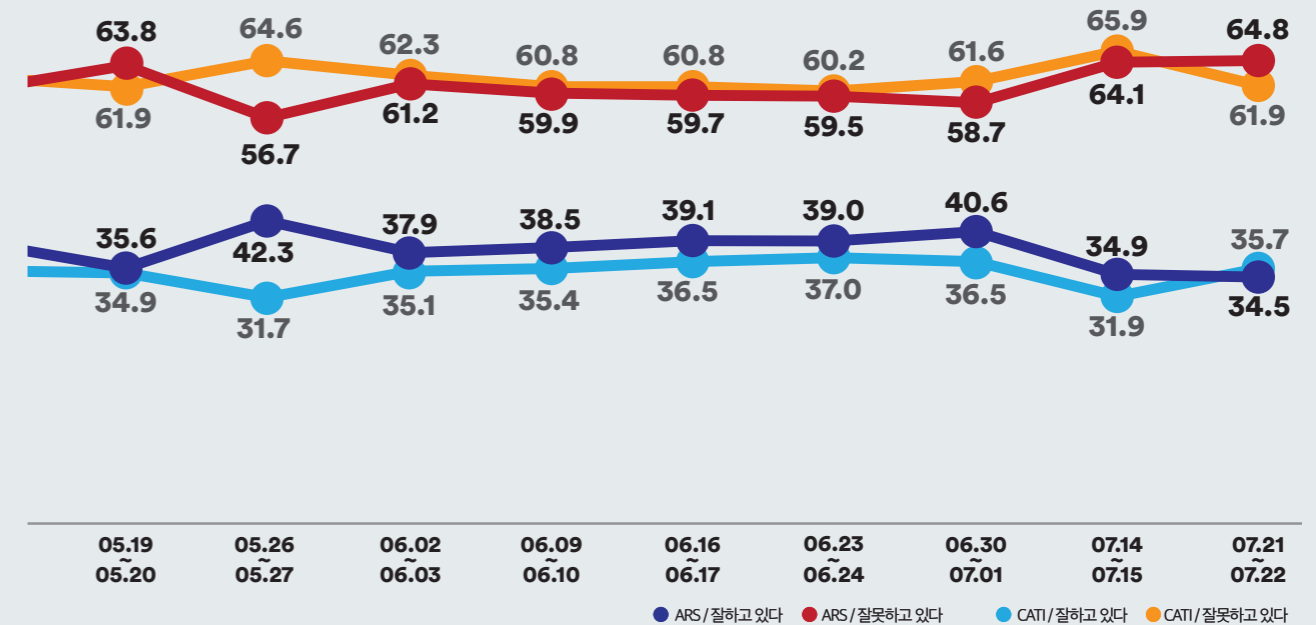
지난 30차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3.8%p 상승, 부정평가 4.0%p 하락 (격차 26.2%p)

지난 45차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0.4%p 하락, 부정평가 0.7%p 상승 (격차 30.3%p)

ARS 조사는 홍보, CATI 조사는 긍정 상승, 부정 하락으로 격차 줄어들음. 그러나 부정 평가는 60% 이상 유지



주차별 국정운영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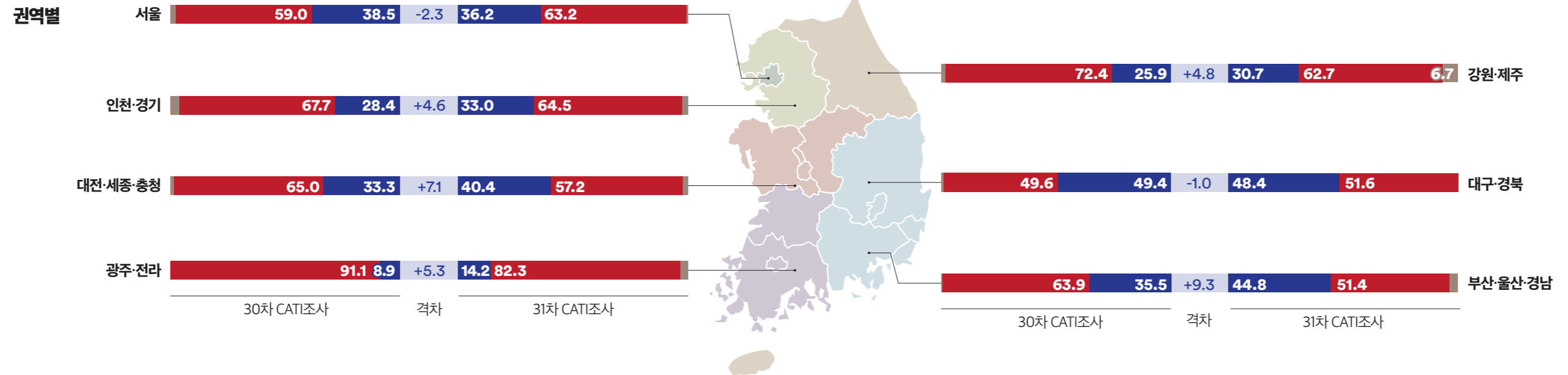


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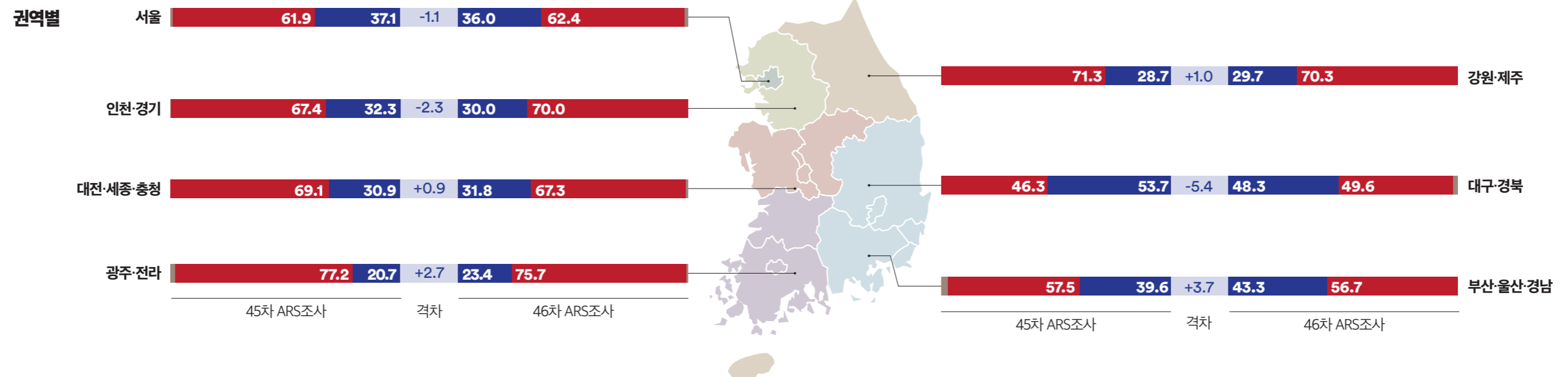
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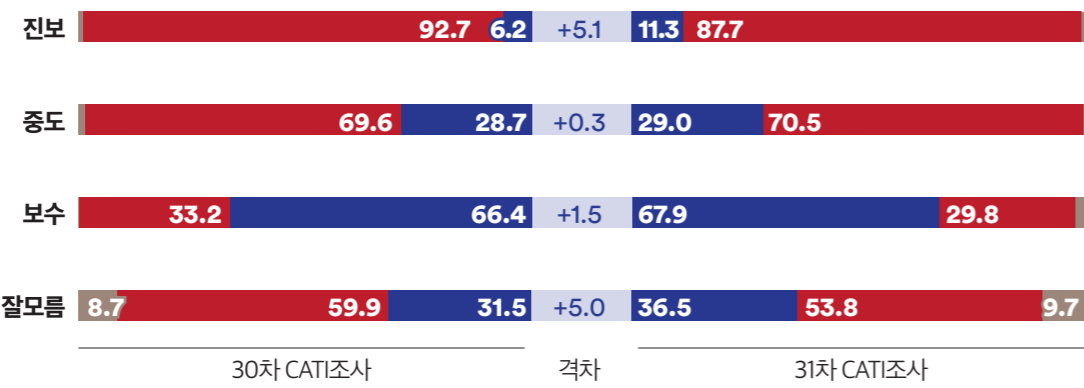


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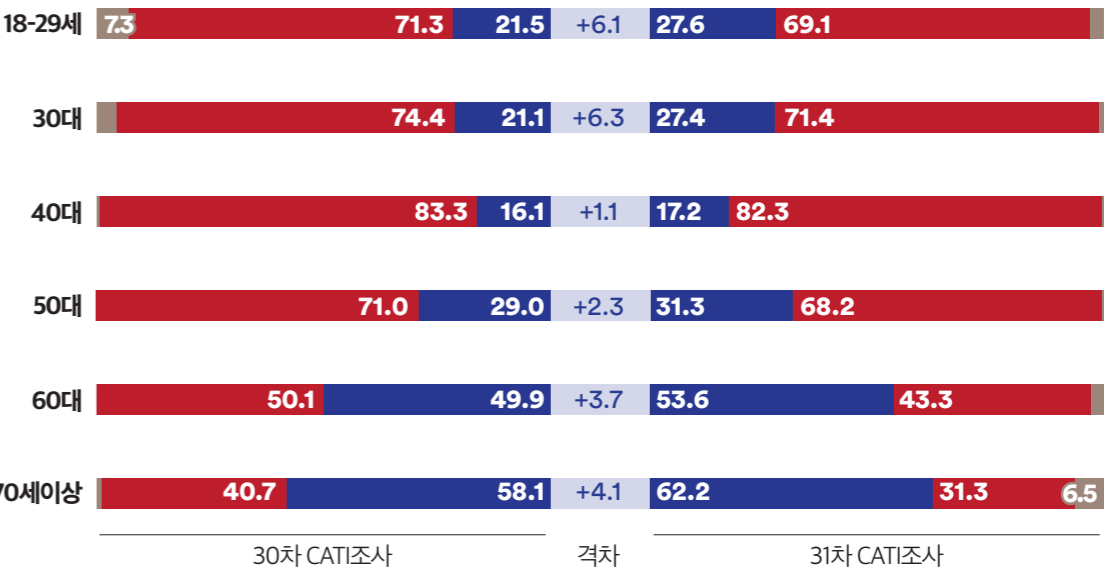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이념성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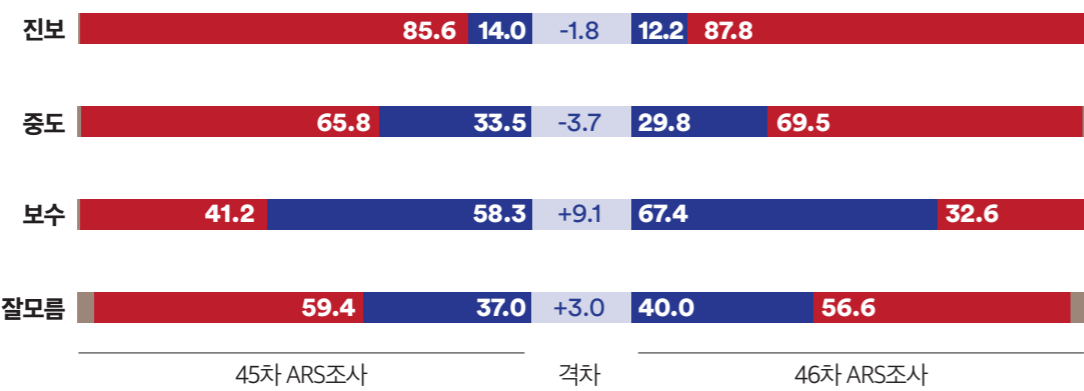


연령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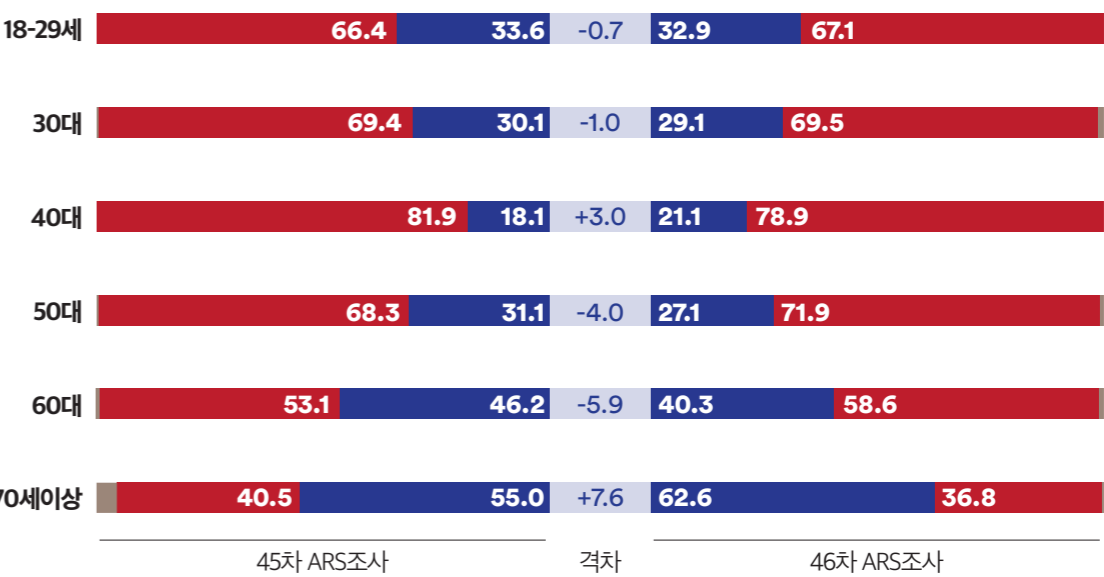


ARS

이념성향



연령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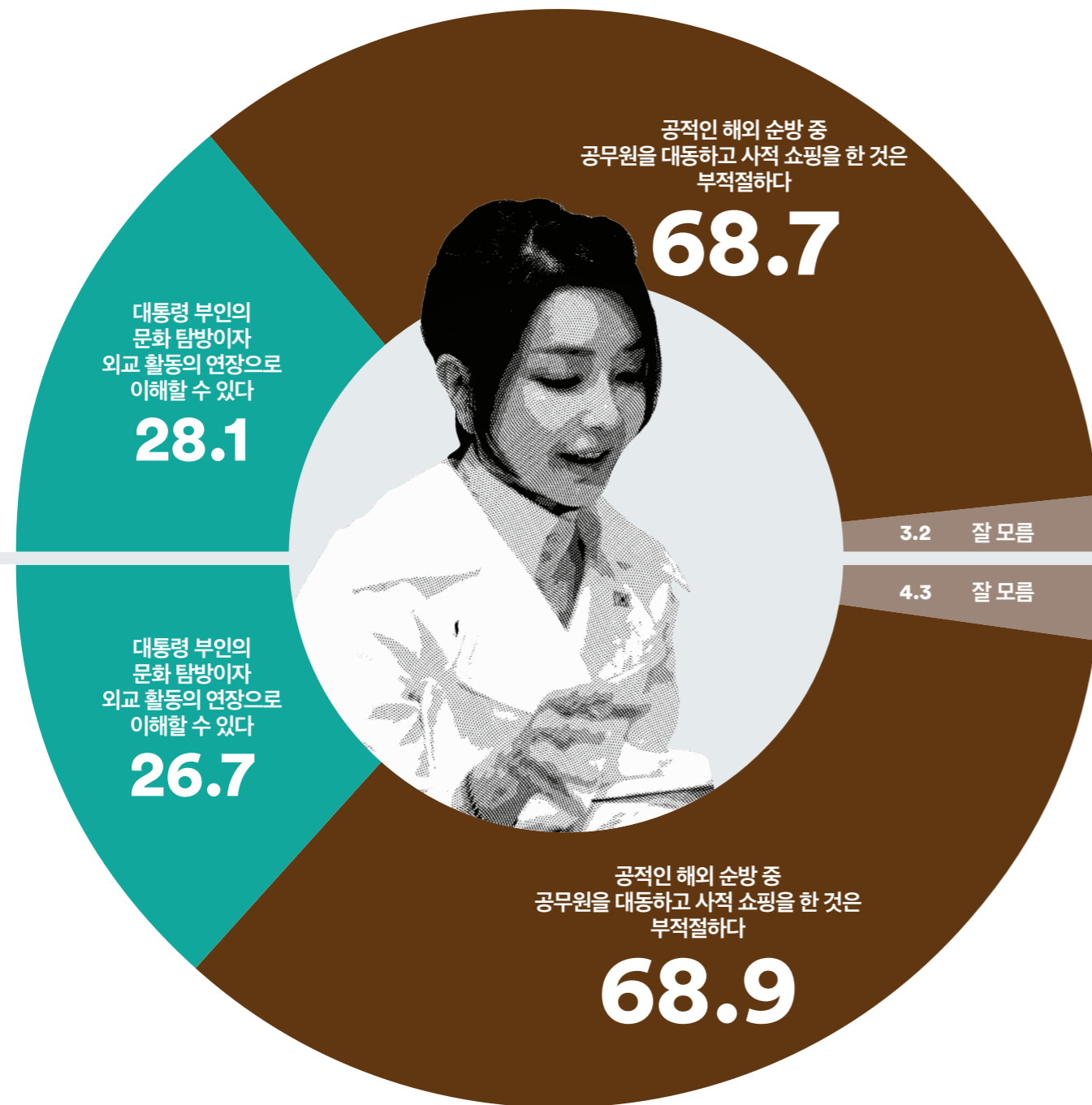


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

Q.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는 나토 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공식 방문 중 명품숍 다섯 곳을 10명 이상의 경호원, 수행원을 대동하고 방문했습니다.
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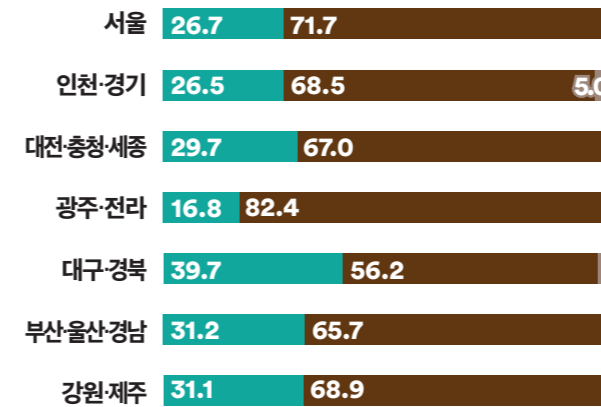
CATI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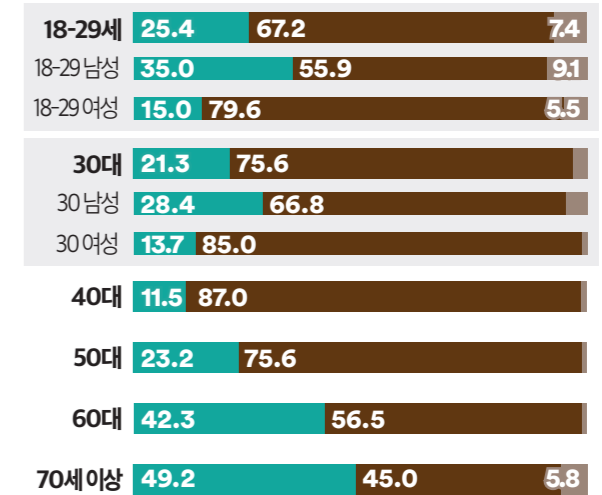


두 조사 모두 10명 중 7명 정도의 응답자가 '사적 쇼핑으로 부적절하다'고 응답
모든 권역,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'부적절하다' 앞섬
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'문화 탐방과 외교 활동'이란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,
'부적절' 응답이 CATI 31.1%, ARS 23.9%로 적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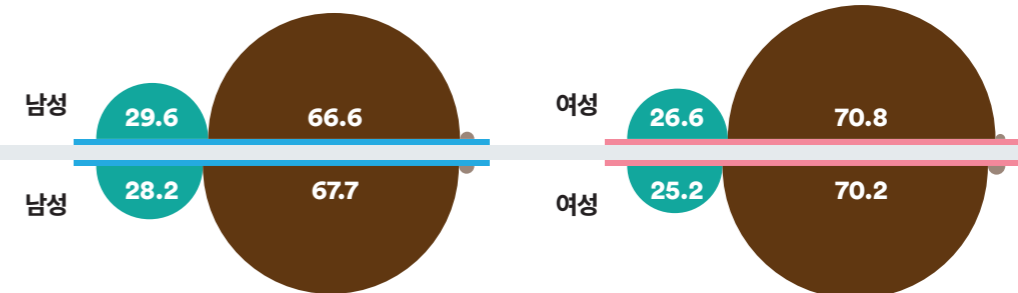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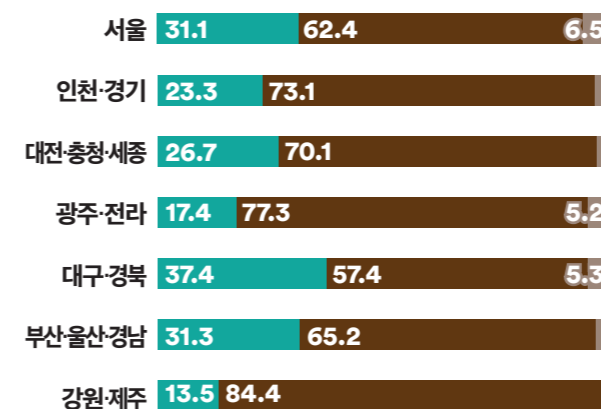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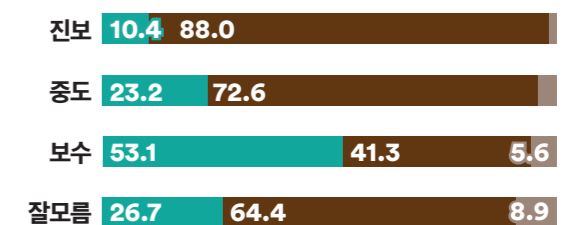
성별



권역



이념성향



이해할 수 있다 부적절하다 모르겠다



대통령 배우자의 전략할 시찰 참석

Q.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해군 전략 핵잠수함 시찰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참석했습니다.
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대통령이
안보 메시지를 내는 자리에
대통령 부인이 함께하는 것은
가능하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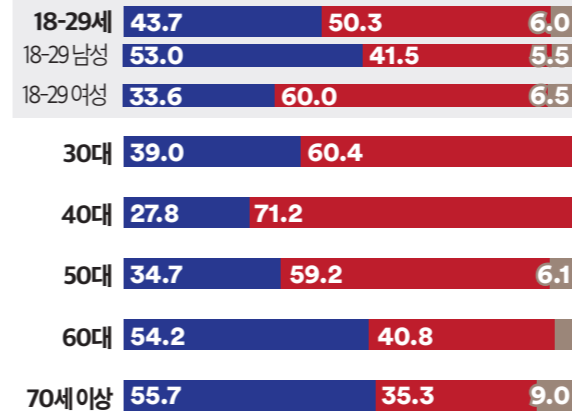
41.9

대통령 부인은 민간인이므로
전략무기인 핵잠수함 시찰에
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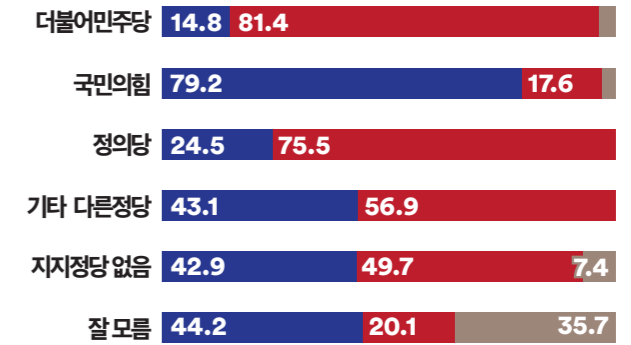
53.6

4.5 잘 모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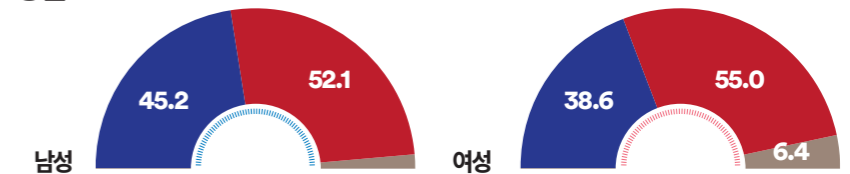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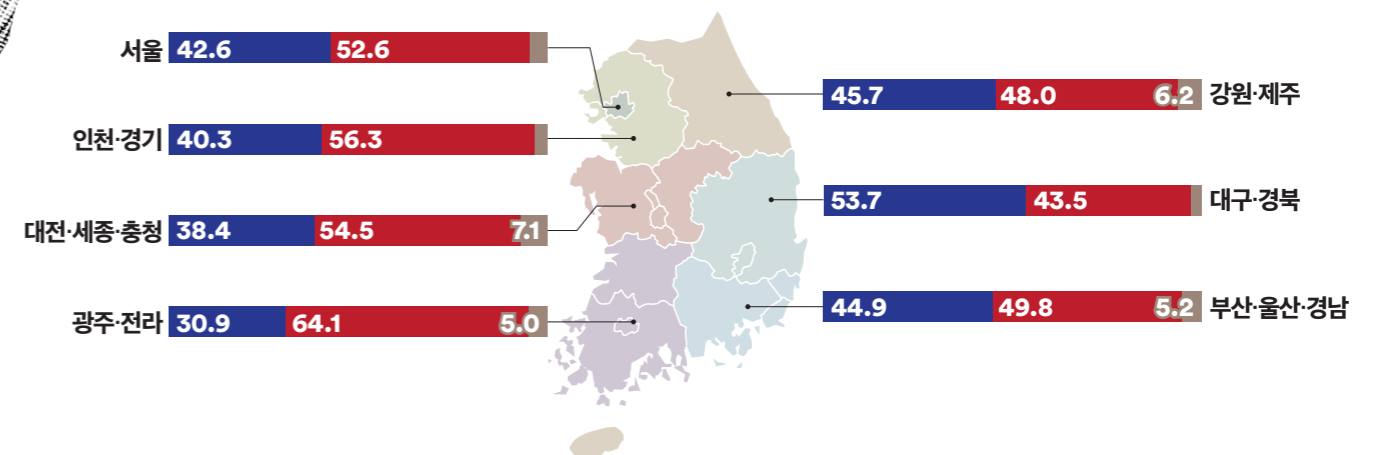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성별


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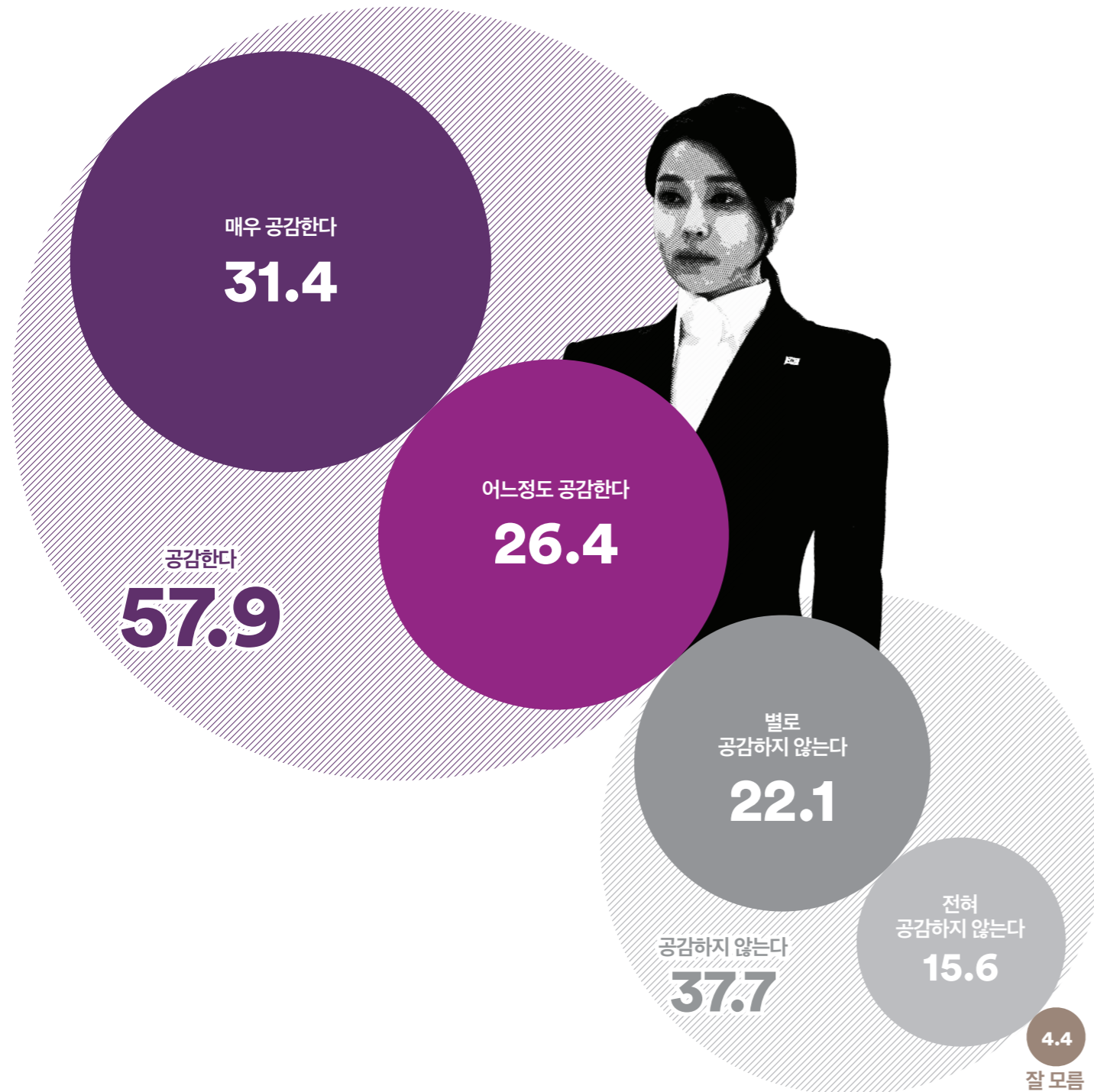
가능하다 부적절하다 모르겠다

10명 중 5명 이상은 '대통령 부인은 민간인이므로 전략무기인 핵잠수함 시찰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'고 응답

50대 이하 응답층,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, 무당층, 중도층에서 '부적절하다' 앞섬(경인·호남권 우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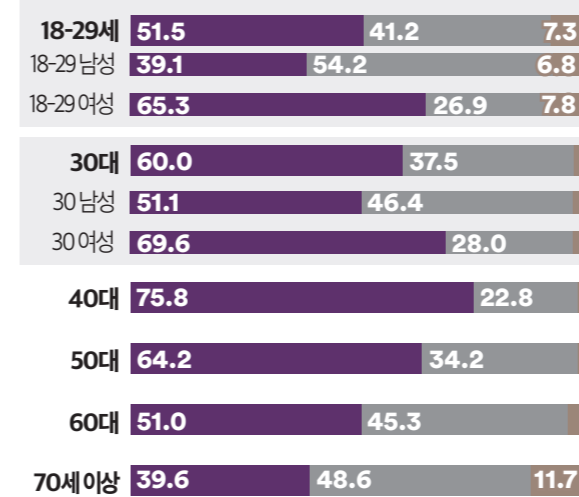
연령대 by 성별 변수에서 18-29세 남성은 '가능하다' 응답이 앞서고, 18-29세 여성은 '부적절하다' 응답이 앞서는 것이 특징적

Q.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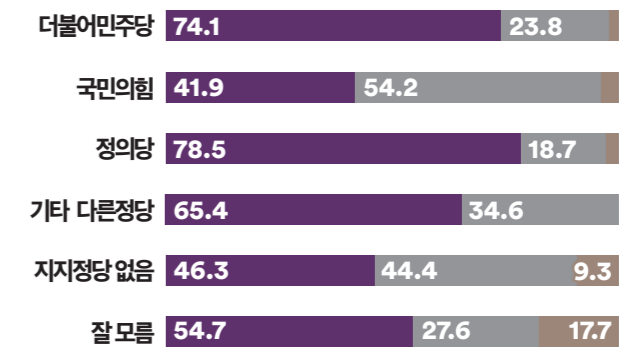


10명 중 5명 이상은 '김건희씨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'고 응답
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나머지 성·연령대·권역별 변수에서 '공감한다'는 응답이 앞섬
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0명 중 4명 이상이 '공감한다'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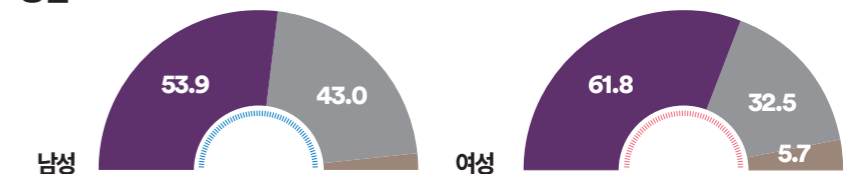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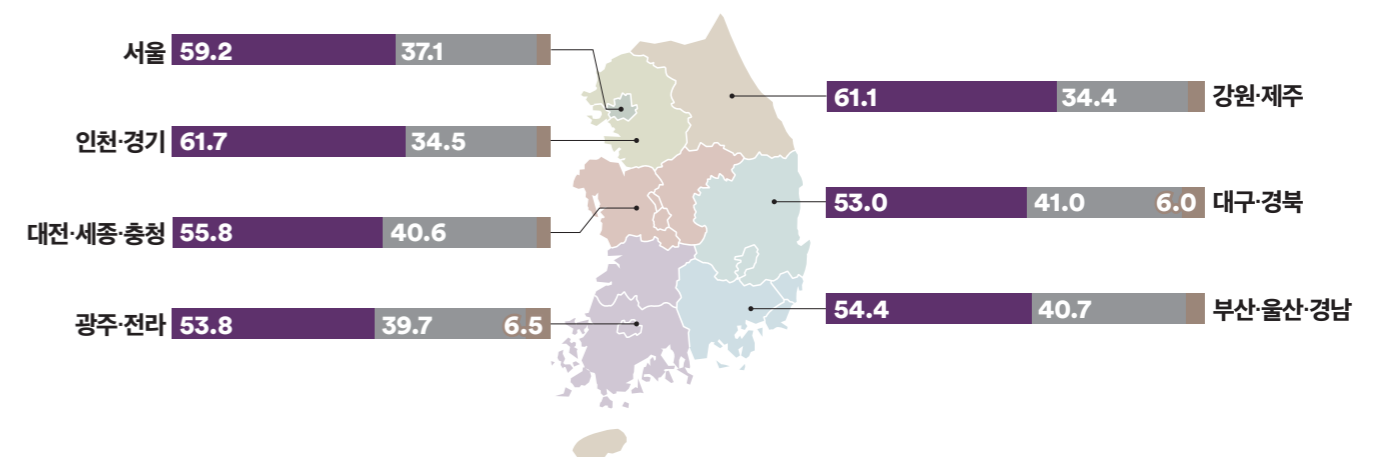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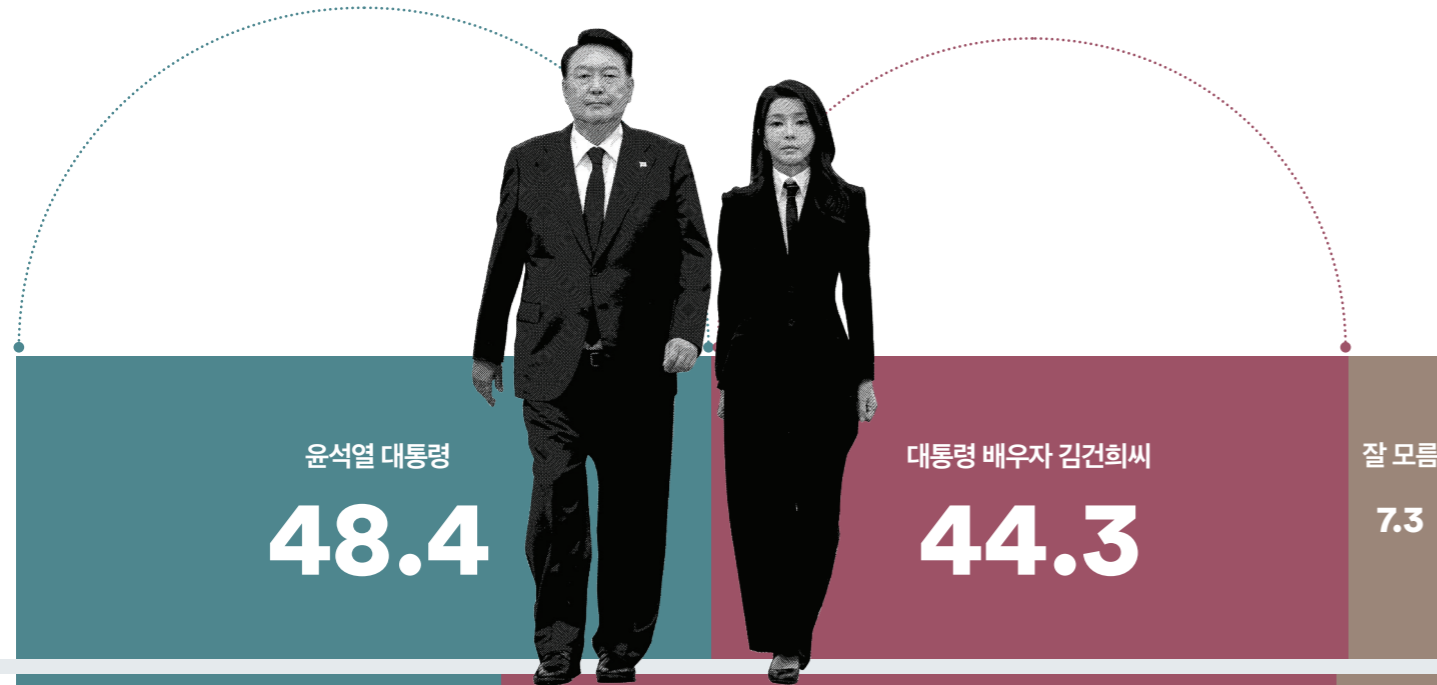
권역



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

Q.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 중 누가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십니까?
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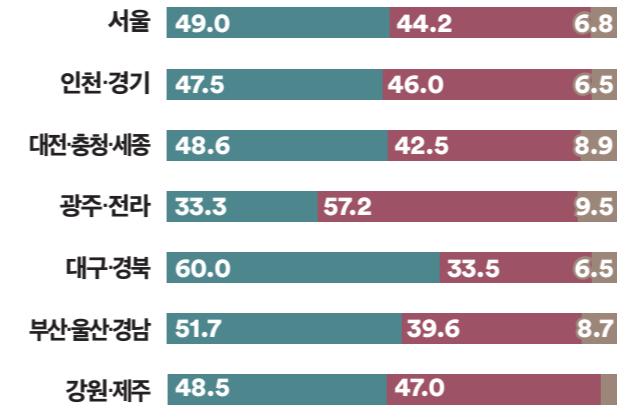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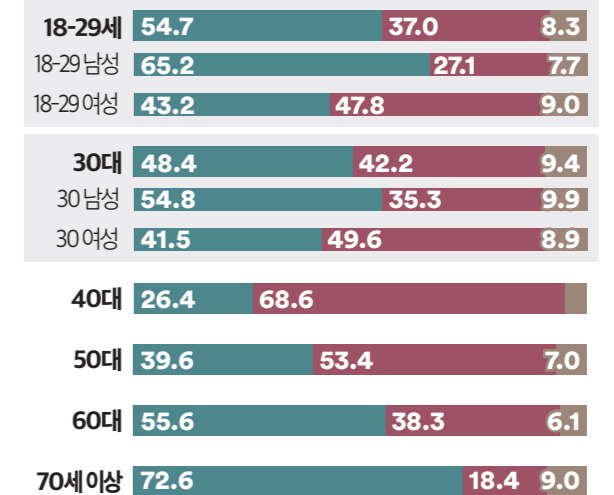
CATI 조사에서는 박빙이었으나, ARS 조사에서는 김건희씨가 우세*

CATI조사에서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빙 또는 앞서고 ARS조사에서는 모든 권역에서 김건희씨 앞섬
 연령별 결과 및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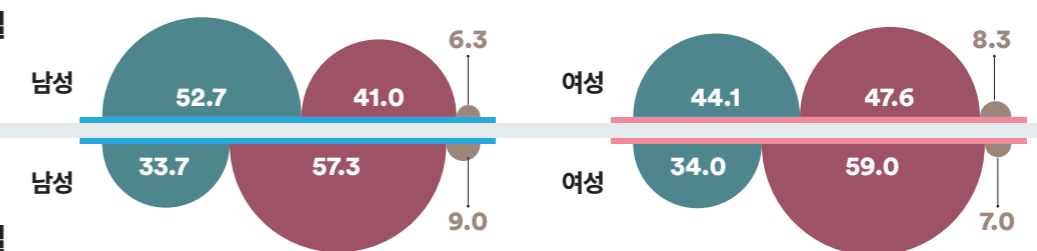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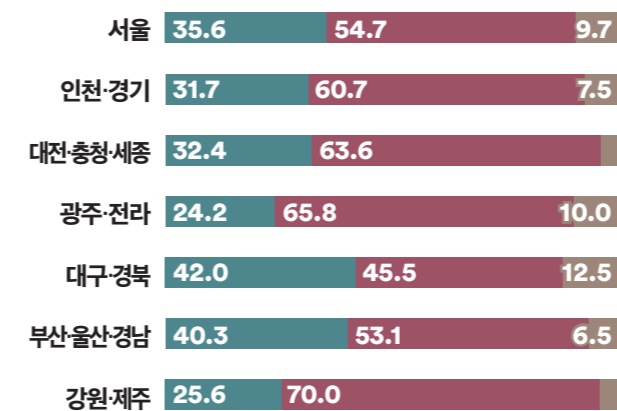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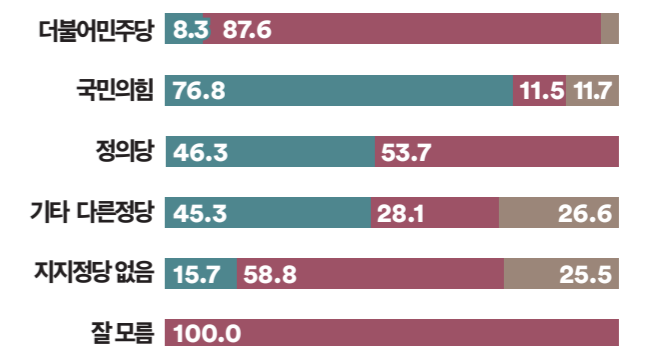
성별


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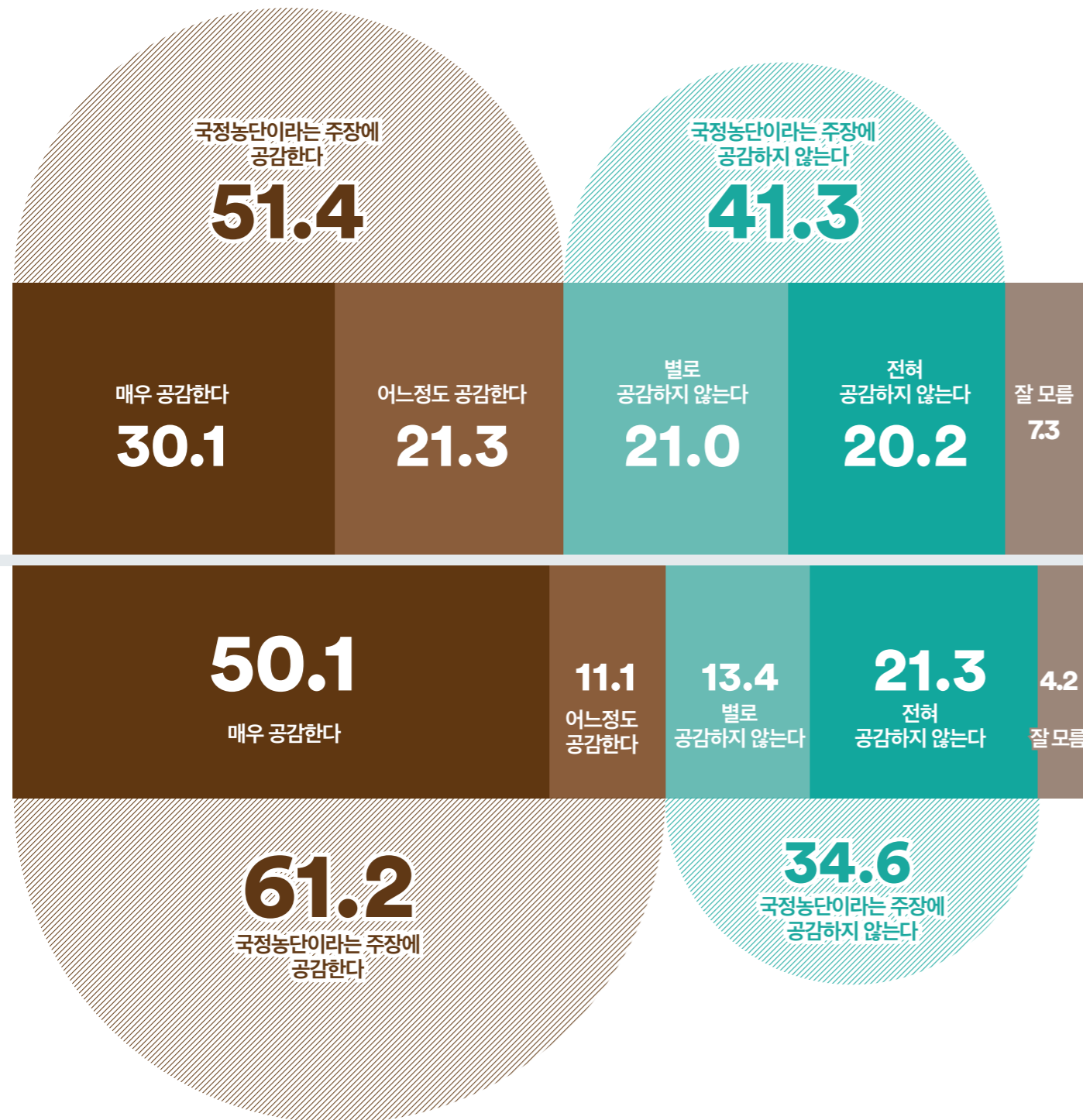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모르겠다

Q. 야당 일각에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최순실 사건에 버금가는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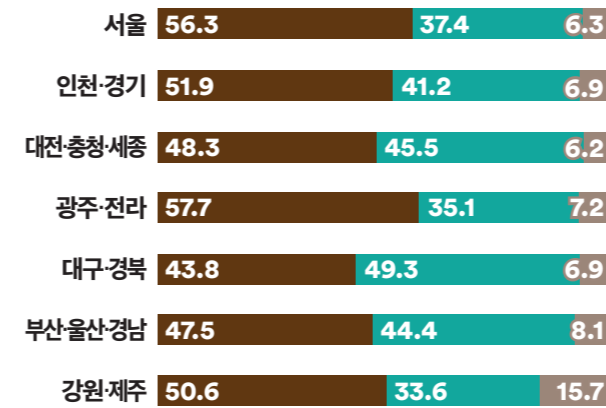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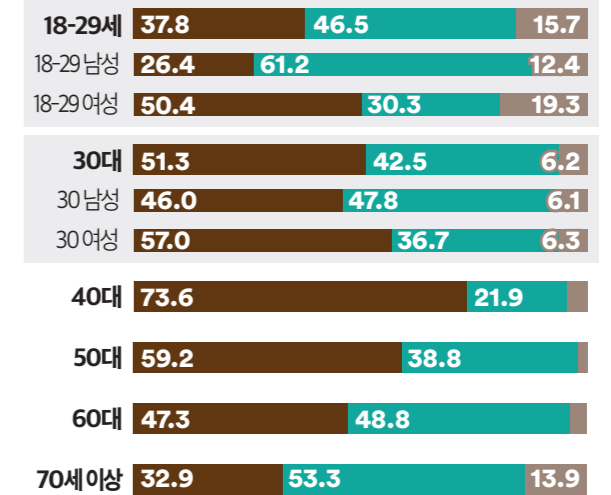
CATI는 10명중 5명, ARS는 10명중 6명이 '국정농단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'고 응답

ARS 조사의 경우, '매우 공감한다'는 응답이 50%, '공감한다'는 응답이 CATI조사보다 10%p 정도 더 높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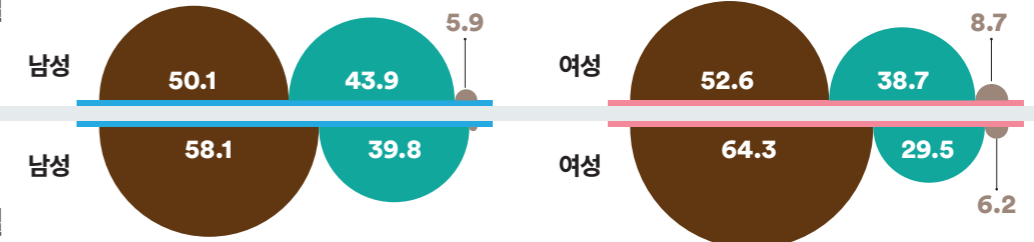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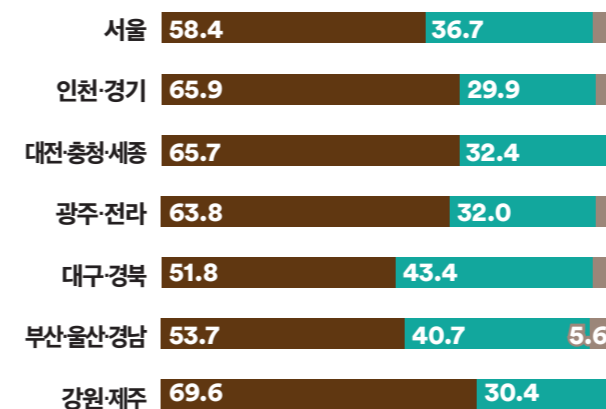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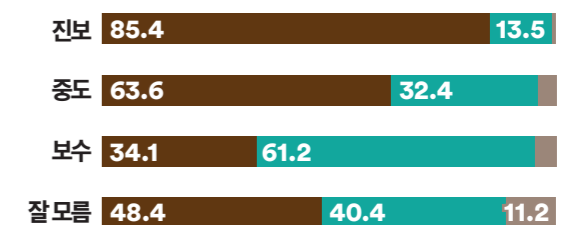
성별


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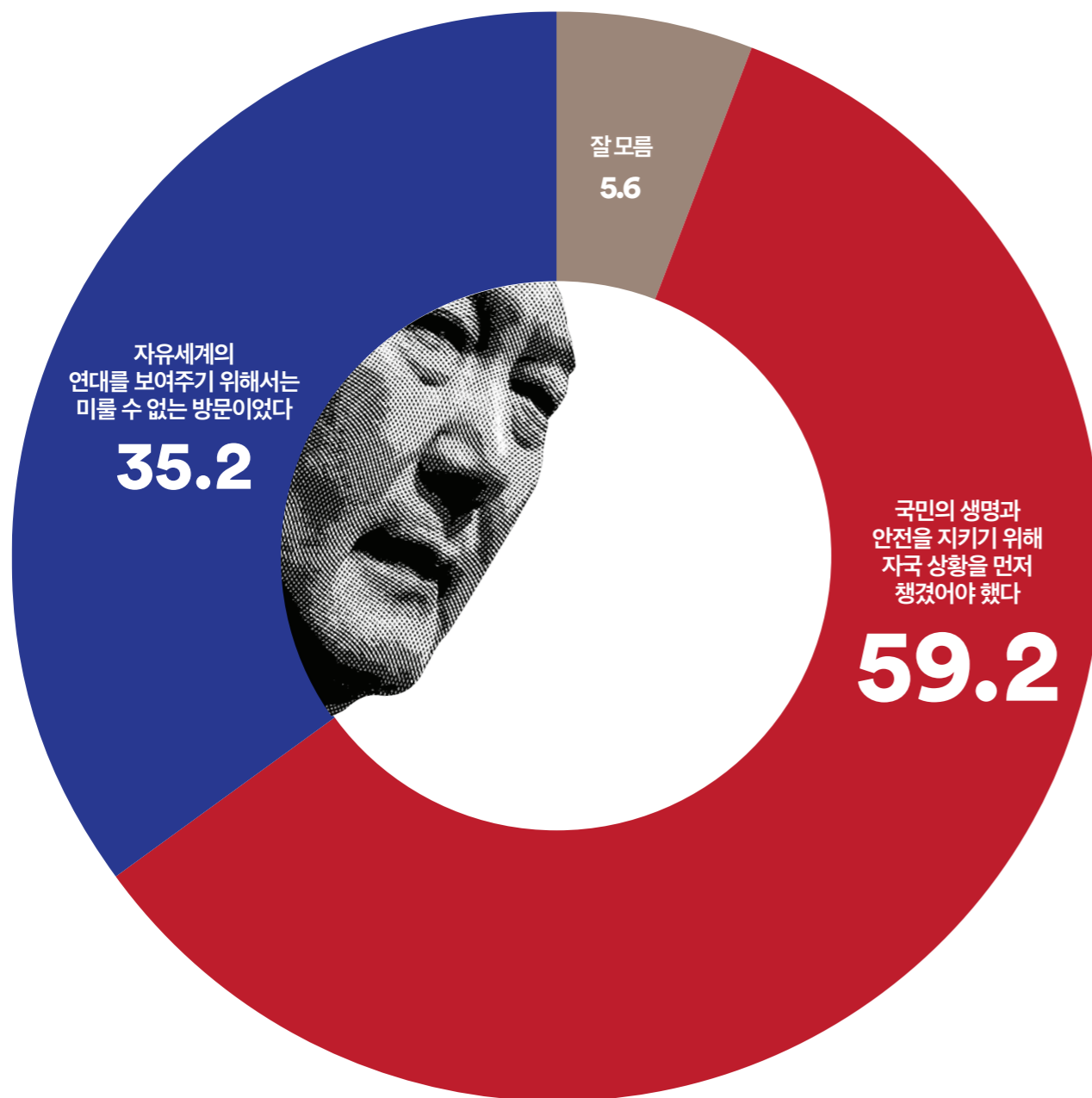
이념성향



공감한다 (Brown bar), 공감하지 않는다 (Teal bar), 모르겠다 (Grey bar)



Q. 윤 대통령은 국내 대형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금 귀국한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도 없다며 일정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.
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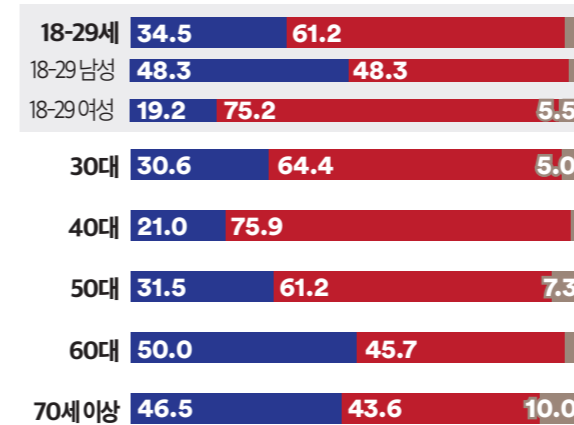


10명 중 6명 정도는 '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국 상황을 먼저 챙겼어야 했다'라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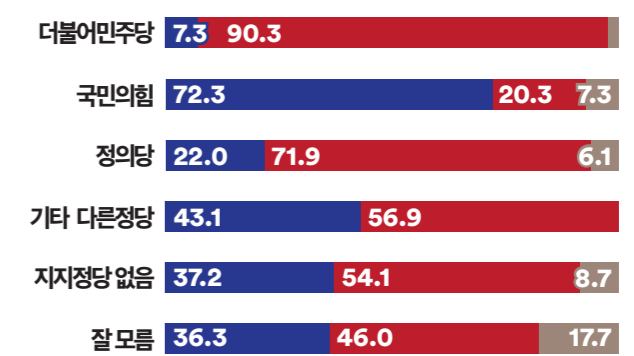
TK를 포함해, 모든 권역에서 '자국을 먼저 챙겼어야 했다'는 응답이 앞섬

5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'자국을 먼저 챙겼어야 했다'는 응답이 우세, 60대 이상에서는 '미룰 수 없는 방문이었다'는 응답이 앞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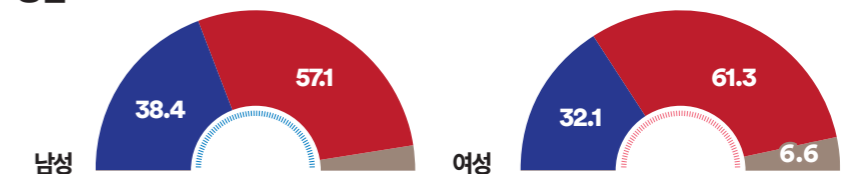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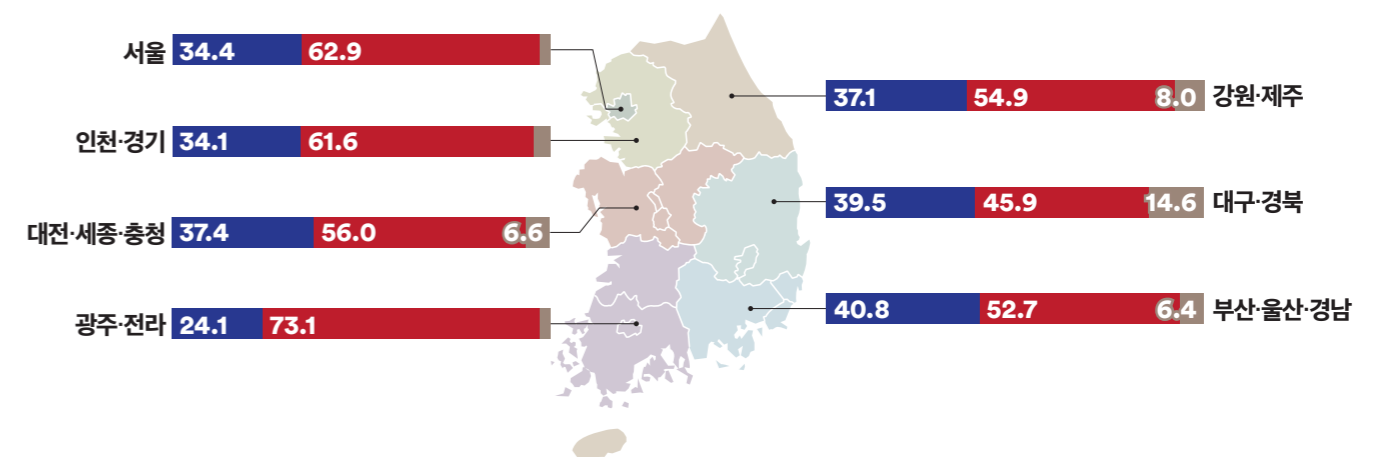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성별


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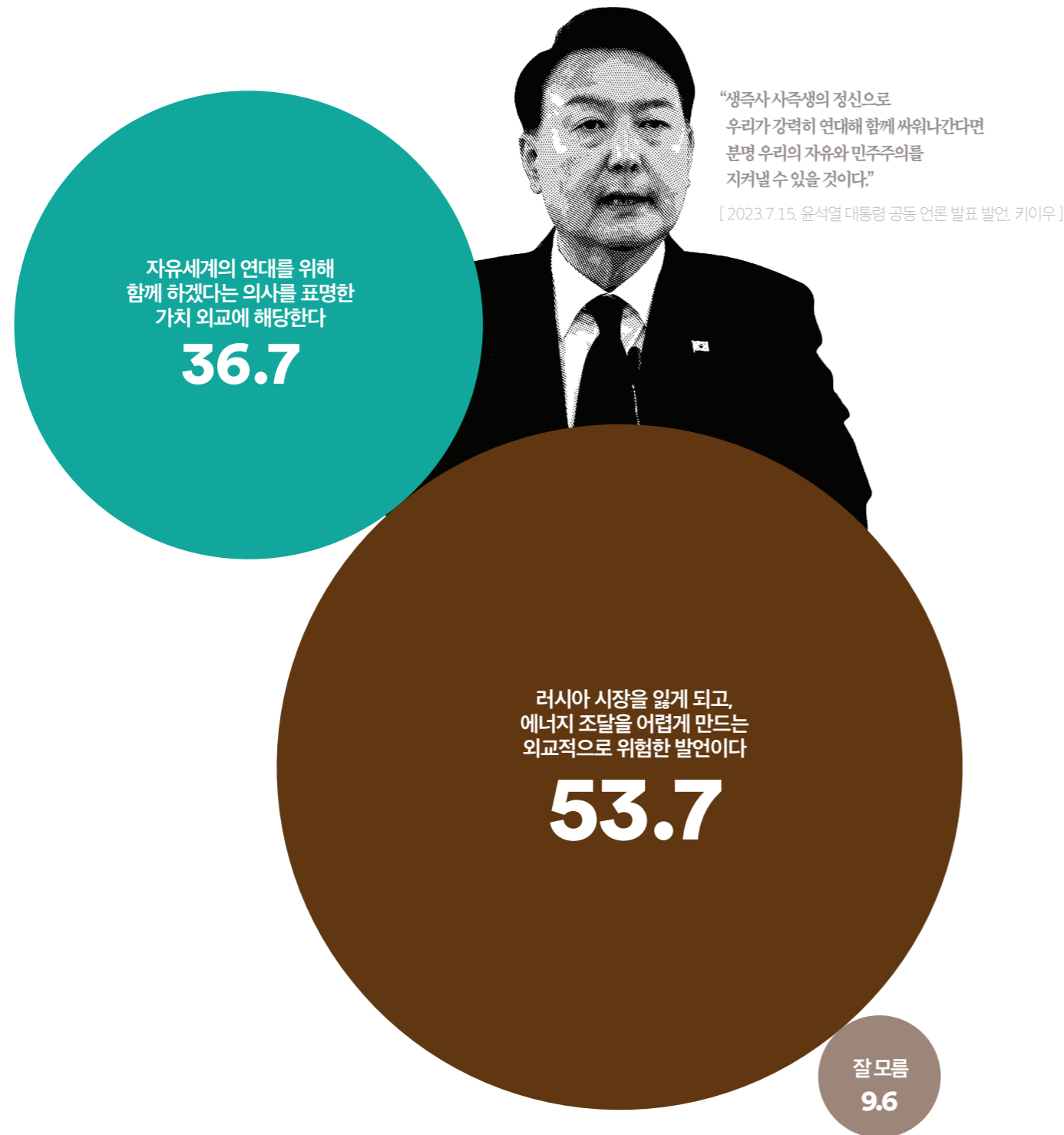
미룰 수 없는 방문

자국 상황이 먼저

모르겠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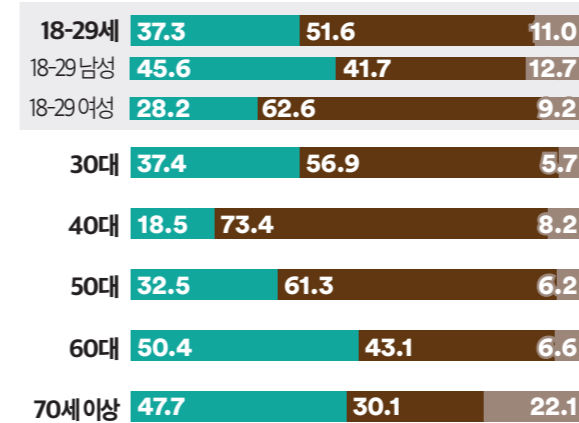
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연대 발언 평가

Q. 우크라이나에서 생극사 사극생으로 함께 싸우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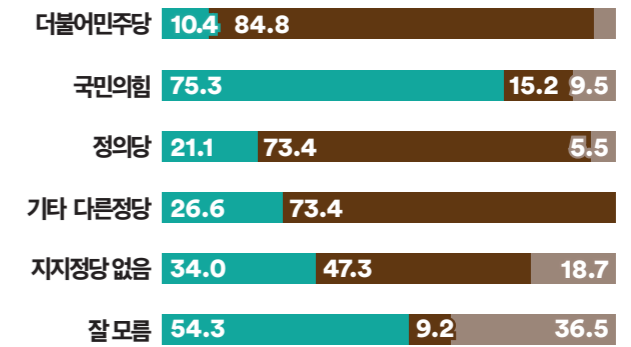


10명 중 5명 이상은 ‘러시아 시장을 잃게 되고, 에너지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외교적으로 위험한 발언이다’라 응답
매우 적은 격차를 나타낸 TK(0.5%p)와 PK(3.0%p)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권역에서는 ‘외교적 위험 발언’이란 응답이 앞섰
50대 이하에서는 ‘외교적 위험 발언’이란 응답이 앞섰고, 60대 이상 응답층은 ‘가치 외교에 해당한다’는 응답이 앞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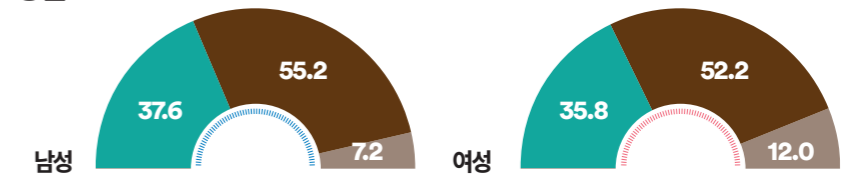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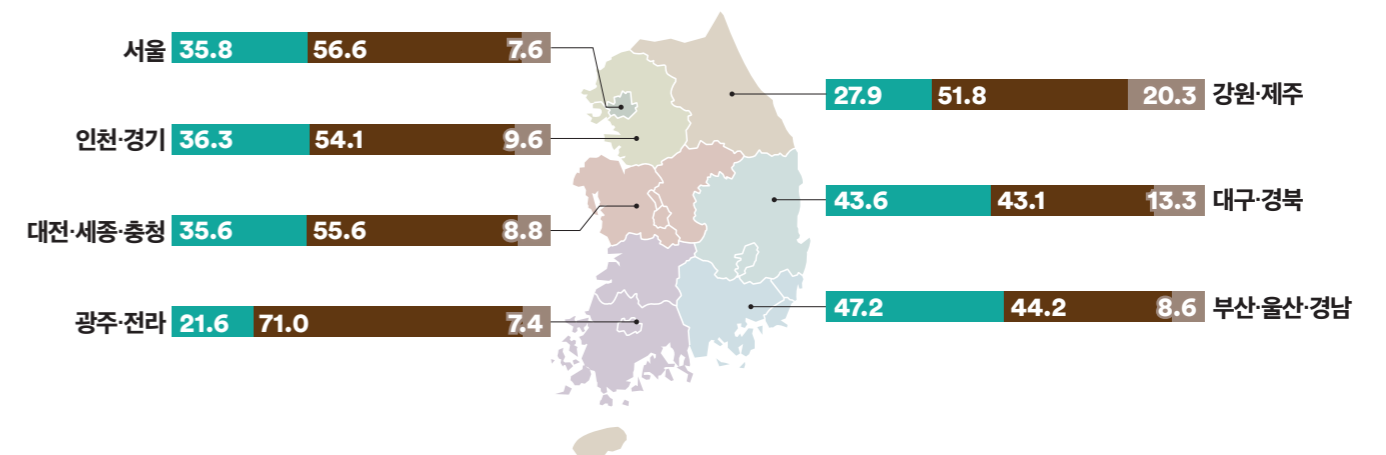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성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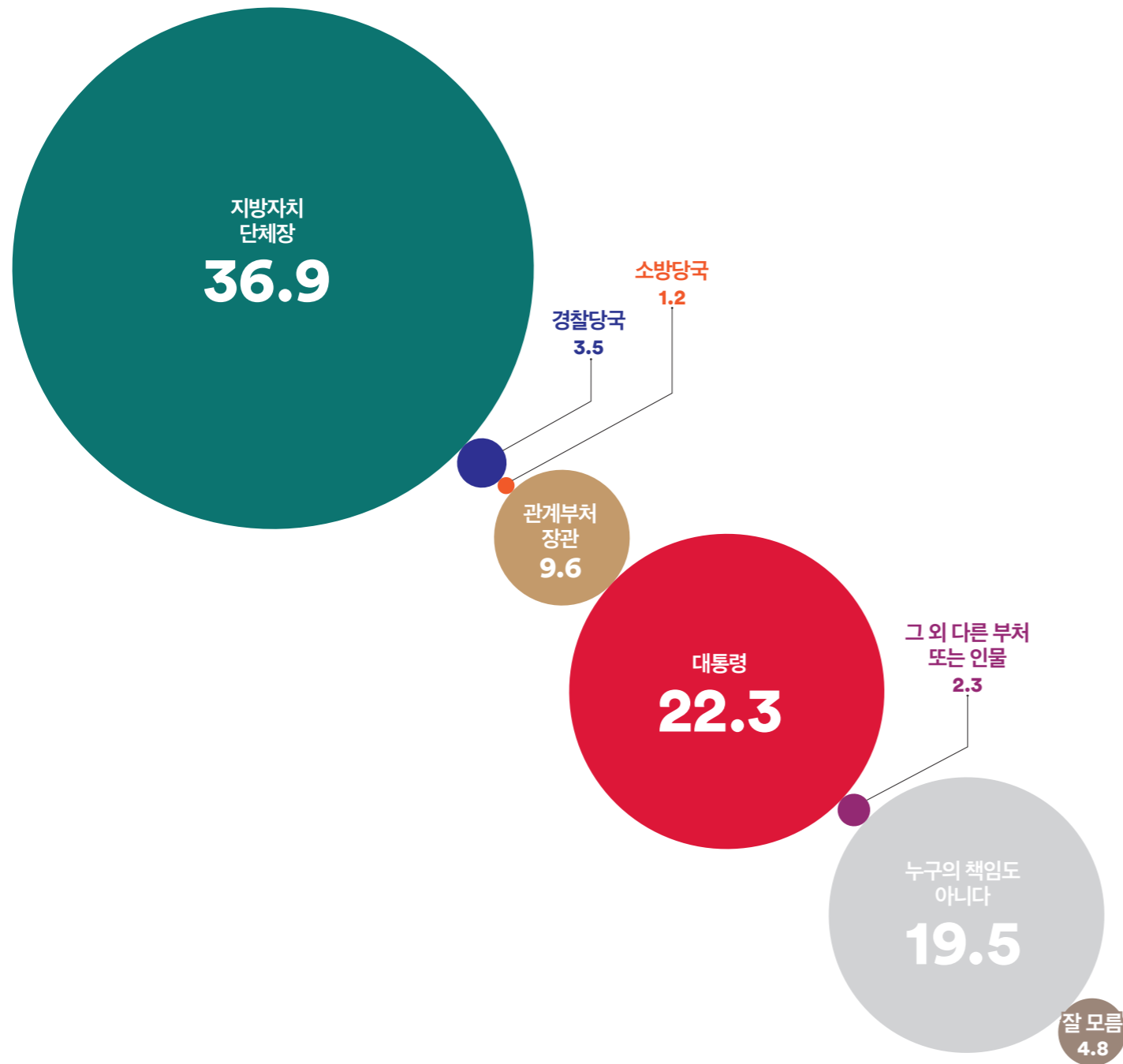


권역



가치 외교에 해당 외교적으로 위험한 발언 모르겠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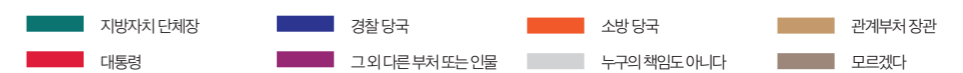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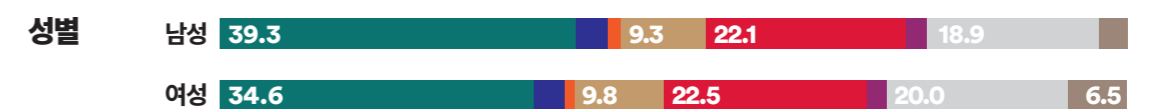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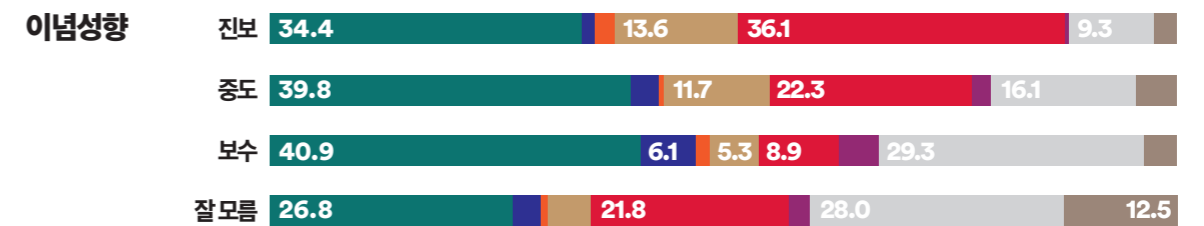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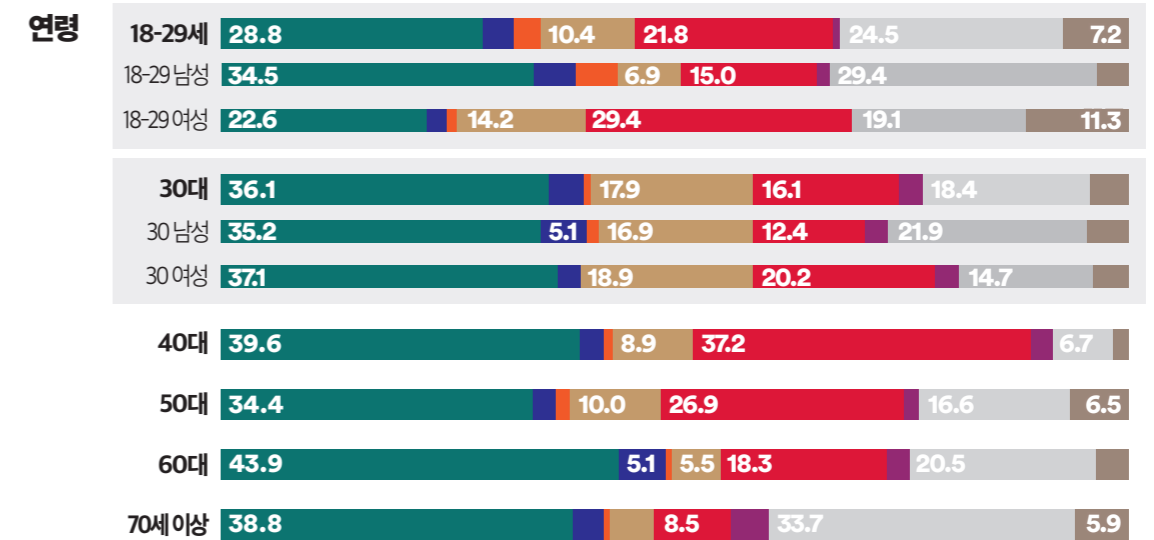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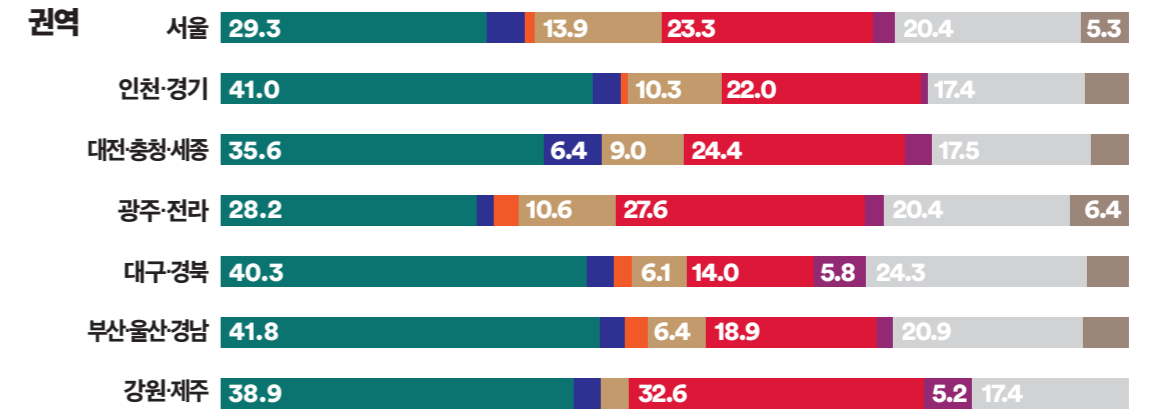
Q. 올해 수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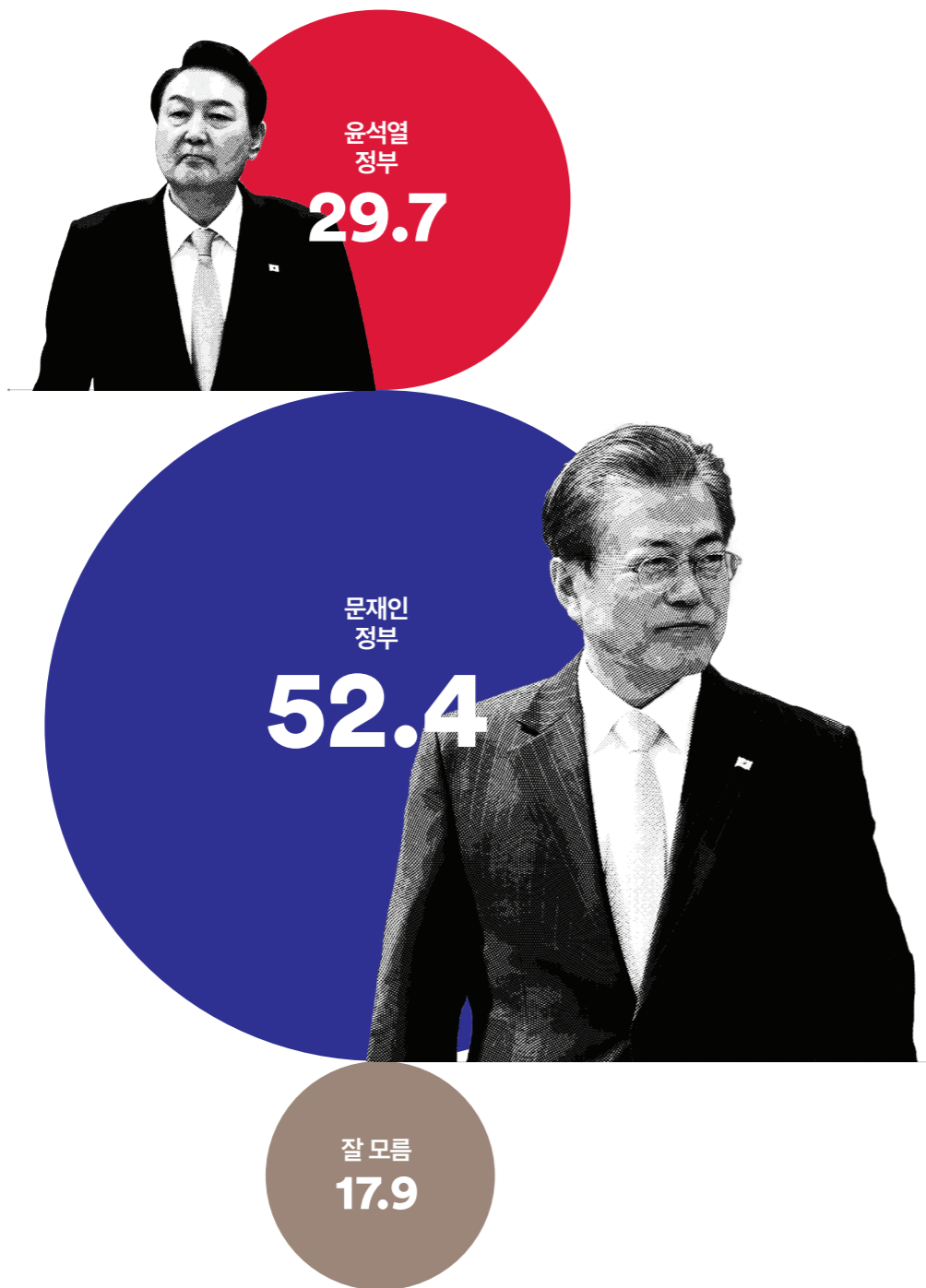
모든 성·연령대·권역별 응답에서 '지자체장'이 최종 책임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, 타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큰 홍수 피해를 본 경기, TK, PK에서는 해당 응답이 40%에 달함 (충청은 4개 지역 합산 응답으로 중복 응답이 일부만 반영)

모든 연령층에서 '지자체장'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, 70세 이상은 '누구의 책임도 아니다'라는 응답 비율이 연령대 중 가장 높음

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'대통령' 39.9%, '지자체장' 32.6% 순, 국민의힘 지지층은 '지자체장' 47.3%, '누구의 책임도 아니다' 30.5% 순



Q. 재난대처의 관점에서 어떤 정부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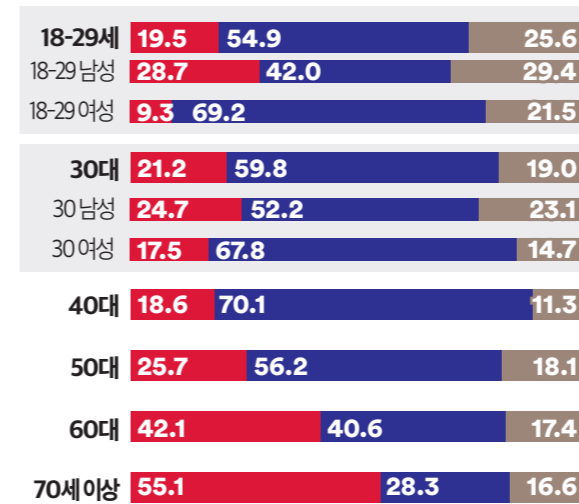


재난대처의 관점에서 더 안전한 정부를 물어본 결과, 10명 중 5명 이상은 '문재인 정부'라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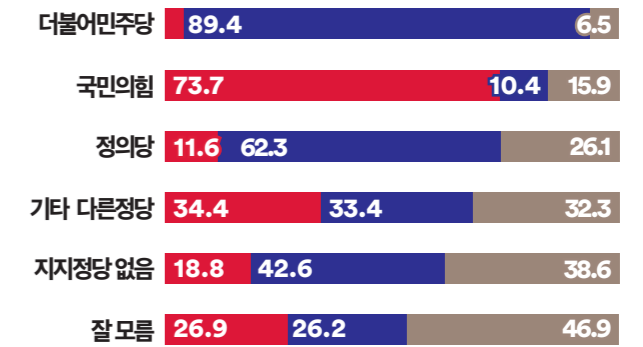
모든 권역에서는 '문재인 정부'라는 응답이 앞섬(수도권, 호남권 우세, TK 박빙)

50대 이하에서는 '문재인 정부'라는 응답이 우세,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'윤석열 정부'라는 응답이 우세(60대 박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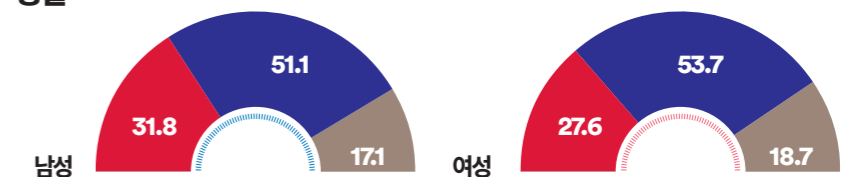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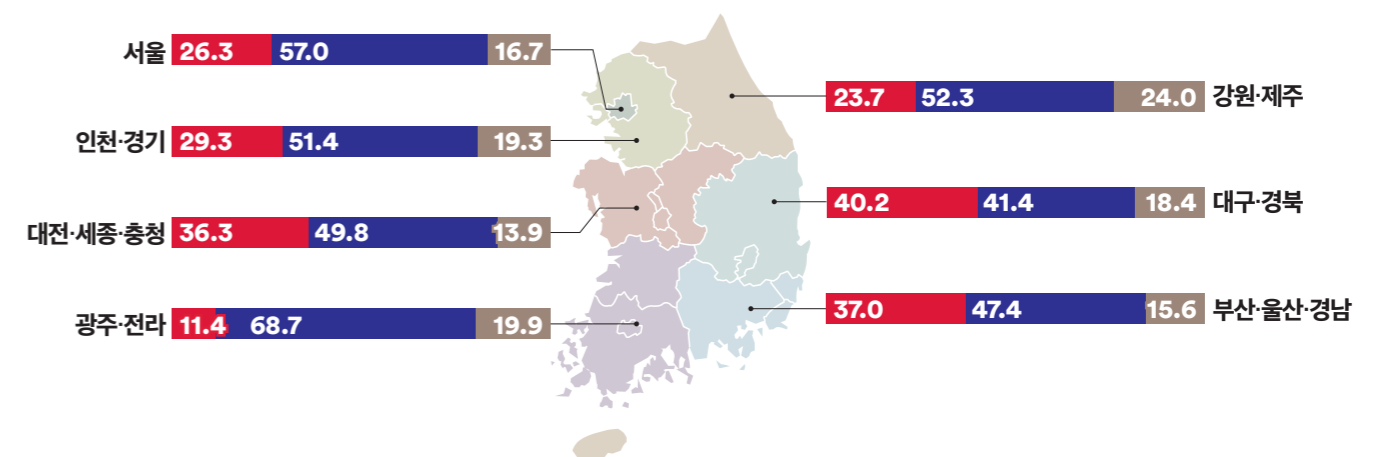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성별



권역



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모르겠다



WWW.
FLOWERRESEARCH.
COM

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

WR_202307_06



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